

## 2016학년도 논술고사

#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6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나뭇가지를 치는 계절에는 하루에 24수\*의 수입이 있었다. 그 밖에 들일, 품일, 농장의 소몰이, 농사일 등을 닥치는 대로 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했다. 누이는 누이대로 벌였지만, 아이가 일곱이나 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갈수록 가난에 쫓기고 물리는 가엾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던 중 혹독한 겨울이 왔다. 장 발장은 일거리가 없었다. 집에는 빵이 없었다. 말 그대로 한 조각의 빵도 없었다. 어린아이들이 일곱이나 있는데도!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를 교회 앞 광장에 있는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잠들려는 참이었다. 가게의 창살 달린 유리 진열장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 보니 마침 그때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깨뜨린 구멍으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 손은 빵 하나를 훔쳐 가지고 나갔다.

이자보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둑은 쏜살같이 달아났다. 이자보는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도둑은 이미 빵을 내던져 버려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팔에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장 발장이었다.

이것은 1795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 발장은 ‘한밤중 남의 집 창을 부수고 도둑질한 죄’로 재판관 앞에 끌려 나갔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송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솜씨가 뛰어나 더러 밀렵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불리했다. 밀렵자는 당연히 굶지 못한 눈길로 보기 마련이다. 밀렵자는 밀수입자와 더불어 도적과 비슷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도회지의 끔찍한 살인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밀렵자는 숲 속에 살고, 밀수입자는 산 속이나 바다 위에 산다. 도시는 부패한 인간을 만들고, 또한 잔인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 산과 바다와 숲은 야성의 인간을 만든다. 그러한 자연은 인간의 거친 일면을 키워 주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면을 파괴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장 발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전의 규정은 뚜렷했다. 우리들의 문명에도 두려운 시기가 있다. 형벌이 인생의 파멸을 선언하는 때이다. 사회가 멀어지고 하나의 정신을 지닌 인간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버림받는 순간. 아, 그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순간인가! 장 발장은 5년의 징역을 선고 받고 항구의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수(sou): 프랑스의 옛 화폐 단위.

-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

(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도[天道]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

백이와 숙제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어진 덕망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했어도 굶어 죽었다.

또한 공자는 제자 일흔 명 중에서 안연만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안연은 늘 가난해서 술지geme와 쌀겨 같은 거친 음식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춘추시대 말기에 나타난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간을 날로 먹었다. 잔인한 짓을 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제멋대로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끝내 하늘에서 내려 준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 이는 도대체 그의 어떠한 덕행에 의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고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을 일삼으면서도 한평생을 호강하며 즐겁게 살고 대대로 부귀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걸음 한 번 내딛는 데도 땅을 가려서 딛고, 말을 할 때도 알맞은 때를 기다려 하며, 길을 갈 때는 작은 길로 가지 않고, 공평하고 바른 일이 아니면 떨쳐 일어나서 하지 않는데도 재앙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사실은 나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하늘의 도라고 한다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길이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은 제각기 자기의 뜻을 좇아서 행한다는 말이다. 또한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들도 했다.

“부귀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는 천한 일자리라도 나는 하겠다. 또 만일 찾아서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내가 좋아 하는 것을 좇겠다.”

“추운 계절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세상이 다 흐려졌을 때 비로소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드러난다.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부귀한 사람을 중시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을 하찮게 여길까?

- 사마천, 『사기』

(다)

이웃에 장생(張生)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장차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 재목을 구하었는데 뽕뽕이 들어찬 나무들 모두가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속에 있는 무덤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르고 왼쪽에서 보아도 쪽 뻗었으며 오른쪽에서 보아도 곧기만 하였다. 그래서 좋은 재목이라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뒤에서 살펴보니 슬쩍 구부러져 쓸 수 없는 나무였다. 이에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하였다.

“아, 재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용모를 그럴 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 말을 들어 보면 조리가 정연하고 그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만 여겨지며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 보아도 삼가며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군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급기야 큰 변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때에 가서는 본래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마니, 국가가 결단나고 마는 것은 늘 이런 자들 때문이다.

대저 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건대, 소나무 묘소가 짓밟지도 않고 도끼나 자귀에 의해 해침을 받지 않은 채 비와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 나가니 쪽쪽 뻗어 곧게 올라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그만 이토록 구부러져 쓸모없이 되는 경우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물욕(物慾)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한 나머지 천성(天性)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는 많고 바르고 곧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장생은 마침내 이 일을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내가 대답하였는데, 그 말이 이리하였다.



# 2016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열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나 역시 해 줄 말이 있다. 『서경』의 「홍범」 편에서 오행(五行)을 논할 때 나무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 바르다 하였다. 그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재목으로는 쓸 수 없을지 몰라도 속성으로 볼 때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이 바르기만 하니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죽음을 면하는 것 역시 요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구부러졌을 경우는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라 하더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 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다. 자네도 큰 건물을 한 번 보게나. 마룻대나 기둥이나 서까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할 경우에도 구부러진 재목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조정을 한 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부로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바른 도를 소유한 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늘 불행하지만 비뚤어진 사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公侯)에 봉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 말을 통해서도 굽은 선비가 굽은 나무보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유, 「곡목설」

[문제 1-1] 제시문 (가)와 (나)에는 각각 ‘법전의 규정’과 ‘하늘의 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나 있다. 그 내용과 이유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문명’을 개선하고 ‘추운 계절’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제시문 (다)의 ‘장생’이 제시한 나무와 사람의 유사성과 ‘나’가 제시한 나무와 사람의 차이점을 요약하고, 이들의 견해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도척’과 같은 자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나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좋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결코 그릇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긴장된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이며 이를 ‘자아 방어 기제’라고 부른다.

포도 덩굴에 잘 익은 포도가 한가득 열렸다. 보석 같이 반짝이는 탐스런 포도 열매를 보고 어느 누가 그것을 따먹고 싶지 않겠는가? 여우도 포도를 먹고 싶어 아침부터 포도나무 아래에 자리를 차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우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여우는 잘 익은 포도를 올려다보며 침을 흘렸다. 그러나 포도는 높은 곳에 있어서 그냥 쉽게 먹을 수가 없었다.

“어떡하지?”

“그래. 맞다. 높이 뛰어 오르면 포도를 딸 수 있을 거야.”

여우는 혼자 중얼거리다 뒤로 몇 발짝 물러선 다음 앞다리를 길게 뻗어 뛰어 올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이 포도에 닿을락 말락하면서 땅에 떨어졌다.

여우는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했지만 배는 더욱 더 고프고 힘도 딸려 포도는 점점 더 높게만 느껴졌다.

그때 바람이 불자 마른 포도 잎이 사르륵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

그것을 보며 여우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잎 대신 포도가 한 송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우는 고개를 들어 포도를 쳐다보며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우의 기대와는 달리 포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여우는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어서 시고 떼을 거야. 괜히 먹었다가는 혀만 얼얼해질 테고, 어차피 뺨을 거 먹어서 뭐한담. 저런 신 포도는 쥐도 안 먹는다.”

여우는 굶주린 배를 잡고 웃으면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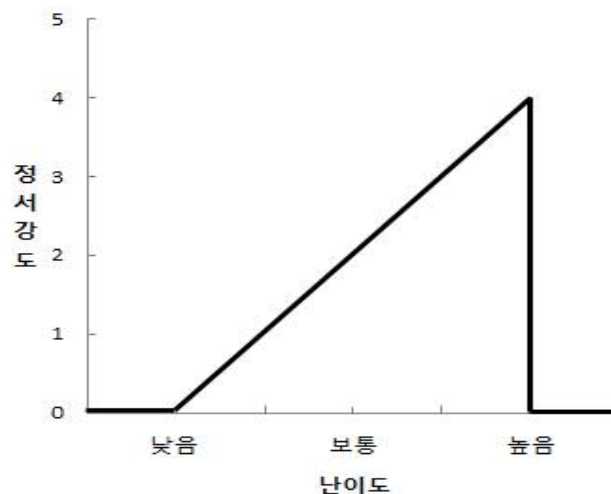
『이솝 우화』를 본 사람은 분명 이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우화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신 포도를 뜻하는 ‘sour grapes’라는 단어가 사전에 실려 있을 정도다. 이는 ‘손에 넣지 못한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합리화(rationalization)’라는 자아 방어 기제의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여우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회사에서 승진을 못할 경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직위가 높아지면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지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편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신 포도’ 기제와 대비되는 ‘단 레몬’ 기제도 합리화의 유형에 속한다. 단 레몬 기제란 자신이 가진 것이 설령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레몬이 실제로 시고 떼더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달고 맛있다고 여기며 합리화한다. 레몬이 실제로 달콤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되는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다시 보니 가격만 비싸고 색깔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들에게는 그 옷이 최신 유행 스타일임을 강조하며 비싼 가치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이나 선택한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좋게 믿는 경향이 있다. 바꿀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좋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고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 마음의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나)

정서 강도 이론(theory of emotional intensity)에 따르면, 정서는 목표를 향한 어떤 행동을 이끄는 동기적 상태를 말한다. 정서의 강도는 어떤 목표(표적, target)를 향한 열망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 때 정서 강도는 목표를 획득하는 난이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어려움(난이도)이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노력이 요구되며,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될수록 정서 강도는 커지게 된다. 아래 <그림>은 목표를 획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난이도)과 정서 강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정서 강도와 목표 획득 난이도의 관계

(다)

인지 부조화 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에 따르면, 사람들은 태도, 신념, 그리고 행동의 여러 측면들 가운데서 어떤 불일치를 지각하게 되면 불편한 내적 상태, 즉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그 상태를 가능하면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 자신 및 자신의 행동과 주위 환경에 대한 지식을 인지요소라고 부른다. 인지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그것들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서로 관련이 있는 인지요소 사이에도 서로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서로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마음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지요소들을 일치시키려고 한다. A와 B, 두 가지 인지요소가 서로 충돌하면 인지체계 안에서 부조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이때 빨리 부조화를 깨고 그것들을 일치시키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인지요소 간의 부조화가 심해지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해진다.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동기 때문이다.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면 다음 세 가지 과정 중 하나를 거쳐야만 한다. 첫째, 두 가지 인지요소 중 하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둘째, 두 가지 인지요소 중 하나를 변화시킨다. 셋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지요소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흡연자의 마음에 ‘나는 담배를 핀다’와 ‘흡연은 암을 초래한다’는 두 가지 인지요소가 있다. 그 사람은 ‘담배는 좋다’와 ‘담배는 해롭다’의 두 가지 갈등적인 인지요소로 긴장을 경험할 것이다. 이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는 두 가지 인지요소 중 하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흡연이 폐암의 원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두 가지 인지요소 중 하나를 변화시키거나(‘금연을 결심하고 금연껌을 씹는다’), 새로운 인지요소를 추가한다(‘나는 담배를 피기는 하지만 많이 피지는 않는다’ 혹은 ‘나는 타르가 적은 담배를 핀다’).

(라)

세계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던 한 종파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종파의 교주는 자기가 외계의 수호신들로부터 신탁을 받았노라고 공표했다. 조만간 큰 홍수가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진정한 신도들만이 구원을 받아 정해진 날 자정에 비행접시로 구출된다는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 그 종파의 신도들은 때 지어 몰려들어서 대홍수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이 종파의 어떤 신도들은 직장에 사표를 내기도 했고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리기까지 했다. 비행접시의 도착시간이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이 고조되었다. 급기야 그 종파의 지도자는 또 다른 신탁을 받았다. 즉,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보답으로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폭발적인 환호가 집단 속에서 터져 나왔고 그 신자들은 전보다 더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언대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아마도 신자들이 종파의 교주나 외계의 수호신들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예상할 법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믿음으로 종말에 처할 뻔 했던 지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2-1] 제시문 (나)의 <그림>에 나타난 정서 강도와 목표 획득 난이도 사이의 관계를 투입된 노력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가)의 배고픈 여우의 행동을 제시문 (나)의 <그림>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제시문 (라)의 사례를 제시문 (가)의 단 레몬 기제와 제시문 (다)의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각각 해석해 보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